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 정치, 연예보다 중요한 예수”

지오앤디교회

임진혁 목사 초청 부흥회

13일 저녁 7시, 지오앤디교회 (Go&Disciple Church, 정병규 목사)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임진혁 목사(한국 마가의다락방교회)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주문했다. 임 목사는 시대의 타락과 교회의 영적 무기력을 말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인기를 얻을만

큼 얻었고 힘도 가졌지만, 그 힘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맛을 알고, 돈의 유혹에 빠지면서 점차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이 기계적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때 반드시 스탑해야 한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로 ‘

자아’, ‘세상’, 그리고 ‘사탄’을 들었다.

특히 사탄의 존재를 강조하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영적인 영향력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으면 마귀에게 100% 잡힌다”라며 “사탄은 신학 지식조차도 교만의 도구로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학대학 시절, 한 선교학 교수가 “요즘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경험을 회고하며, “지식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지식만이 아닌, 은혜 속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집회는 많은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체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씀과 기도를 내면화하고 몸으로 익히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전략에 서서히 무너지는 현실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마가의다락방교회 창립자인 박장원 원로목사의 에피소드를 인용하며, “사명을 향해 외부 부흥회 집회에 가려는 목사를 막는 장로가 암에 걸려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일화”를



지오앤디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임진혁 목사는 “지금은 마지막 시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주문했다. ©기독일보

전했다. “사탄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십 년도 기다린다”며,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늘 성경

에 비취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은 결국 폐망으로 간다. 신앙은 영의 일이며, 성령님과의 긴밀한 동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가 없었고 은혜가 체화되지 않아 결국 타락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어떤 이는 죄를 지을 때 경고가 생각나지 않았다 한다”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했다.

또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등에 사람들이 왜 너무 신경을 쓰고 있을까. 얼마전 한국의 어떤 톱 스타의 스캔들이 ‘빵’ 터지자 마자 미디어에 그 연예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왔다”며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생각을 쓰잘데기 없는 것에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나는 무엇에 예민하고 무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이라며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해서 망했다.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때사에 깨어서 주님과 불어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맨 기자 → 2면에서 계속

美 유명 강해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 86세로 별세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향년 86세

신학자
오웬 스트래칸(Owen Strachan)
은 “믿음의
사자여, 평
안히 쉬소
서. 이제 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던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그의 설교 방송 사역단체인 ‘그레이스투유’(Grace to You)는 14일 저녁 공식 X 계정을 통해 “마음은 무겁지만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이자 교사인 존 맥아더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며 그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존 풀러턴 맥아더 주니어 목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5성 장군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와 먼 친척으로 1939년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LA피시픽 칼리지(현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이학 학자학위, 바이올라 대학교의 탈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탈북을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50년 이상 시무했다.

맥아더가 이끈 사립 기독교 학교인 마스터스 신학교는 “존의 리더십 하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두

차례 아침 예배는 3,000석 규모의 강당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 본문을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해석하는 강해설교”를 강조하며, 미국교회 강단에 본문 중심의 설교운동을 확산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생 3,300편 이상의 설교, 400권 이상의 저술을 남겼다. 대표 저서인 ‘MacArthur Study Bible’은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부 이상 판매 됐으며,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Strange Fire’ 등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해진 기자

미주기독일보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감세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나성서남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말씀 성회 노진준 목사 초청

희년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로 예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2025년 7월 25일(금)~27일(주일)

주제

복음의 능력!

집회일정

25일(금) 저녁 7시 “영생을 주셨다!” (눅 16:19-24)
26일(토) 새벽 6시 “낙심하지 않는다” (고후 4:1-4)
저녁 6시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 (요 18:33-38)
27일(주일) 오전 11시 “나그네로 살라” (렘 29:5-7, 31:23-26)
오후 1시 주제 세미나

강사

노진준 목사

최권능

담임목사

Rev. Kwon Nung Choi



www.kcswla.com
Youtube channel QR code



해외한인장로회
나성서남교회
Korean Church of Southwest Los Angeles

담임목사 최권능

Rev. Kwon Nung Choi

문의: (310) 719-7193 16100 Crenshaw Blvd., Gardena CA, 90249

각자의 자리에서의 사역, 멘토링으로 하나 되다

7월 11일 오전 10시에 코너스톤 교회(이종용 목사)에서는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사역' 결과를 보고하고, 이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모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모임은 동료 멘토링에 관심이 많은 강태광 목사가 피어 멘토링의 원리를 적용해 새롭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유수 목사(우리 비전교회 은퇴)와 이보윤 사모가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다. 이어서 김영일 목사(더 섬기는 교회)가기도 하고, 월드쉐어 USA의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으로 섬긴 민경업 목사(나침반교회)가 설교했다.

민경업 목사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문처럼 억지로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며, 나침반 교회 성도들도 사순절 기간 기도와 금식, 헌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고 간증했다.



7월 11일(금) 오전 10시에 코너스톤 교회에서 월드쉐어 USA 멘토링 모임이 진행됐다. ©기독일보

2부 사역 멘토링은 이인규 목사(기독일보 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월드쉐어 USA 홍보이사장 이종용 목사와 후원이사장 광건섭 목사가 사역에 대해 나누었다.

3부 사역 나눔 시간에는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모든 참석자가 정해

진 순서 없이 추첨 순서대로, 각자 자신의 사역과 삶, 선교 현장에 대해 나누었다. 민경업 목사는 은퇴 후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매주 4일 정도 선원들을 대상

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우규 목사(밸리지역 주안에교회)는 선교적 가정교회 형성 운동에 대해 나누었고 기독일보 이인규 사장은 큰 교회와 미자립교회 매칭을 통해 3년간 미자립교회를 후원하는 위브릿지 사역을 소개하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인하노라"는 말씀을 불들고 이 사역을 지속해 왔다고 나누었다.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연합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비전이었다고 말했고, 이유수 목사는 1년 전 아래가 암선고를 받고,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 다섯 분의 목회자들과 공동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 전문 설치업체 'BTS 솔라 디자인'의 풀김 목사는 사업을 통한 수익은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쉐어 USA는 매년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식비를 선교지 후원을 위해 현금하는 사순절 나눔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사순절 나눔 금식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수리남, 도미니카, 우크라이나 선교 및 복음화를 위해 사용됐다. 주디 한 기자

인랜드교회 제6대 담임목사 최원일 목사 청빙 확정

남가주 포모나에 위치한 인랜드교회(Inland Church)는 6일(주일) 예배시간에 실시한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결과 최원일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를 88.4%로 청빙하기로 확정했다.

최원일 목사는 지난 6월 22일 인랜드교회 주일예배에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방향을 점검하라"(히 12: 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믿음의 경주"(히 1:12)에서, 경주를 뜻하는 헬라어 '아곤'(ajgwvn)에서 영어 단어 'agony'가 파생했다며,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랜드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전화: (909) 622-2324

기할 수 없는 경주"라며 완주를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나눴다.

인랜드교회는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장로교 PCA 한인서남노회 소속이다.

최원일 목사는 남가주사랑의 교회 순장반, 새순, 사랑의순례, 제자반을 섬기고 있다.

인랜드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전화: (909) 622-2324



LA 북부 한인회가 7월 12일 박승목 회장, 김정석 이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LA 북부한인회

LA 북부 한인회, 박승목 회장·김정석 이사장 연임

LA 북부 한인회가 박승목 회장과 김정석 이사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7월 12일(토)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2027년까지 LA 북부 한인회를 이끌며 지역 사회 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LA 북부 한인회 지역은 한인 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한인회 이사 및 고문들 또한 대부분 한인 사회의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모범적인 리더십과 덕분에 LA 북부

한인회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LA 북부 한인회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단문화축제, 추석 행사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며 주류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 1면 기사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에 이어서
"불들고 늘어지고 버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거창한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듬이 중요하다" 마지막 시대, 지금은 군사의 정신이 필요한 때

그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끝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단이 마

지막으로 흔들고 있는 시대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각자가 '개인 종말'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방심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지인의 간증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3박 4일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고 돌아왔다,

집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 구절을 읽다가 말씀이 번개처럼 들어와 변화되었다"고 했다. 이후 도박 덜 러였던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간증했다.

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목사로 살면서 몇 명을 천국으로 인도

했느냐'는 질문이 가장 두렵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한번 사는 인생인데 쓰임받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화덕이 강하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댓가를 치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웹사이트: gondchurch.com/
지오앤디교회 주소: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사무실: 10533 Progress Way Unit A, Cypress, CA 90630
문의: 714-745-8044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Kona S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여름맞이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운과 오레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원웨이교회 2대 담임으로 김성일 목사 취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원웨이교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 2대 담임 김성일 목사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 목사는 로마서 6장 16~22절 본문으로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을 갖고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후 하나님의 종이 된 존재이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이라 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고 했다.

특히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경계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죄를 반복하는 삶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며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오해해 ‘미워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산다고 착각한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며 “죄짓지 않고, 말씀 볼 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원웨이교회는 13일 오전 10시 30분, 2대 담임 김성일 목사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성일 목사. ©기독일보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헬라어 ‘피스티스(믿는다)’의 어원을 소개하며, “믿음이란 주님께 내 생명을 ‘묶는 것’”이라 설명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반복적으로 용서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을 더 따르기 때문”이라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14절, 시편 84편 5절, 임언 23장 26절을 거론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현금이나 지식, 봉사 이전에, 그분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다.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감격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 피아퍼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은 집, 좋은 직장, 자녀의 성공 등 ‘복된 인생’을 꿈꾸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된다”고 말

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리 오너라’는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웨이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길 원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에바다 미션의 박서윤 목사는 축사에서 성경 속 기름부음을 깊은 의미를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여정을 언급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받았고, 그 사명이 여호수아

에게 이어졌다”며, 지도자의 사명 계승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그는 “사율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는 장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영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름부음을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목사는 “반드시 기름부음을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이 가정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축복의 말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원웨이교회 주소: 2120 W 8th #265, Los Angeles, CA 90057 문의 : 626-524-3656

나성서남교회, 50년의 발자취 위에 새 역사를 쓰다

7월 25~27일 노진준 목사 초청
“복음의 능력” 주제로 집회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왼쪽)와 나성서남교회 50주년 기념 말씀성회에 강사로 서게 될 노진준 목사(오른쪽) ©나성서남교회

지역과 이웃을 품는 교회

나성서남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El Camino College 학생들에게는 교회 주차장과 부속 공간을 자

율 학습 공간으로 개방했으며, 팬데믹 기간에는 Chick-Fil-A 직원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일상 속 섬김을 실천해왔다.

또한 특별헌금을 통해 미자립 교

이어, 밀알, 인터서브 등 특수선교 단체 및 방송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VBS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애스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작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최권능 목사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 없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교회, 주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처럼 작지만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로 걸어온 나성서남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은혜로 걸어온 50년, 감사로 달려갈 100년”이라는 표어 아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사명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복음의 능력을 불드는 50주년 말씀 성회

이번 50주년을 기념하여, 나성서남교회는 말씀 성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불잡는 자리를 마련한다.

노진준 목사(전 한길교회 담임, 현 PCM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진행하며, 성도들과 지역교회, 다음세대 모두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조셉 리 기자

말씀 성회 일정

- ▶ 7월 25일 (금) 저녁 7시
 - ▶ 7월 26일 (토) 새벽 6시, 저녁 6시
 - ▶ 7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 오후 1시 세미나
- 장소: 나성서남교회
주소: 16100 Crenshaw Blvd., Gardena, CA 90249
문의: (310) 719-7193
웹사이트: www.kcswla.com
유튜브: @나성서남교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5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5년 7월 31일 까지

| 입학 절차 |

1. 원서접수 웹사이트에서 Apply 바로가기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서류 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 입학 문의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GMU 웹사이트 [Apply 바로가기] www.gm.edu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학생 혜택 |

- 유학생 I-20 발급
- 선교사 및 목회자 정회금
- 영방정부 학비지원 (FSA) 등록 가능
- 온라인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교육 인가 기관

ats, trocs, BPPE

문선영 대표, “재정교육은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위한 것”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 말하는 한국 부모... 13살 성인식 때 자녀에게 씨드머니를 주는 유대인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 캠프 7/30(수), 31(목) LA와 브레아서 개최 자녀와 마트에 갈 때마다 갈등을 겪는 부모가 있다. 부모는 세일 품목을 고르는데, 자녀는 가격은 안중에도 없이 유기농 식품만 집는다. 특정 브랜드의 신발, 강아지 사료까지 유기농이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가 고른 음식에 불만 없던 아이는, 틱톡과 유튜브로 온갖 소비 지식을 접한 이후 ‘기준’이 생겼다. 문제는, 소비 기준은 생겼지만 재정 감각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자녀의 재정 교육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틱톡과 유튜브로 소비는 배우지만, 빚과 크레딧, 세금은 모른다. 미국의 10대 중 5명 중 1명은 기본적인 금융 이해조차 부족하다. 한인 커뮤니티는 어떤가? 높은 교육열, 뛰어난 지능에도 불구하고 재정 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가 있다.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Wise California Finance)의 문선영 대표는 한인 부모들도, 한인 자녀들도 재정에 대한 잘 모르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교육열도 높고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문 대표는 201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정캠프를 시작했다. 팬데믹 때 잠시 공백기를 거쳐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청소년 재정캠프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0일(수) LA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오피스(에퀴터블 빌딩 14층)에서, 7월 31일(목) 브레아 지역 커뮤니티 센터(695 Madison Way Brea CA 92821)에서 진행된다.

캠프의 대상은 틴에이저(13세~19

세)이지만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님의 참석도 적극 권유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같이 재정에 대해 알아야 틴에이저들이 그들의 재정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행 하려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캠프를 시작한 계기는?

“첫 번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부모님들도 재정에 대해 모른다. 부모님이 모르니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나 한국 문화가 아이들에겐,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재정 교육이 필요한데, 부모가 하지 못하니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키워서 의사

시켰더니, 병원 소유주는 유대인이고, 변호사를 시켰더니 로펌 소유주는 유대인이 경우가 많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말씀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한인들이 뛰어난 지능, 높은 교육열을 지니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들었던 학생이 다시 들으

러 오는 경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무료로 했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 기념품을 나눠준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00이지만, 강의는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희 모토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가도 백만장자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이다. 그게 가능하나? 가능하다.

빨리 시작할수록 백만장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기반을 갖추게 도와주는 강의이다.”

문 대표는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의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



문선영 대표(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기독일보

해 설명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하는 빚의 개념, 자산의 개념, 크레딧 카드 활용법, 크레딧 쓰는 법, 복리 저축 원리, 세금과 투자의 원리, 버젯팅,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많이 바뀐다. 빚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고, 용돈을 받으면 저축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텍스트 대해서도 알게 된다.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에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저희가 부모님의 참석을 권유하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들어야 아이들이 재정적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캠프에는 투자 전문가, 뱅커, 재무 담당자, 재정 교육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내용이 재미있다보니,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끝날 때쯤 되면 집중해서 듣는다. 또,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

재정관련된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저도 돈에 대해서 몰랐다. 영화 평론을 전공하고 영화사, 영화 수입 배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인 재정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 본 적도 돈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영화 이론을 전공하고 영화 관련 전문가이니, 영화 관련 사업을 했던

고 비판만 할 줄 알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서, 제가 무책임한 어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내가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내 자녀 세대에서는 바뀔 수 있겠구나, 또 기독교 안에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씨앗을 뿌려야지 포도나무가 열린다. 포도나무를 준다 하더라도 경작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크리스천 고객들이 오셔서 미래 소원이 선교라고 하신다. 그런데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신다. 그냥 막연히 그분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만한 노력을 할 것이다. 누구는 준비해도 되고, 누구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재정 관리는 현실과 이상의 일치를 위한 것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재정관리’는 현실과 이상이 일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인데, 일어나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질문 열 개를 줬다.

여덟 번째 질문이,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이 선교라고 썼다. 열 번째 질문이, 지금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이었다. 그랬더니, 세계 여행이든지, 집을 사겠다고 답했다. 여덟 번째 질문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재정관이 없으면,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당장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게 된다. 본인이 소망하는 것은 선교인데,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면 세계여행이나 집을 사겠다고 한다는 것이 대개 아이라니하다.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다.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일치되도록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육이 잘 들어가야 한다.”

주디 한 기자

등록 문의: 626 827 9599, symoon-moneytalk@gmail.com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범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감사 : 김경윤 총장

주최 : 미주 기독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Three Generations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일보(213-434-1170)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추억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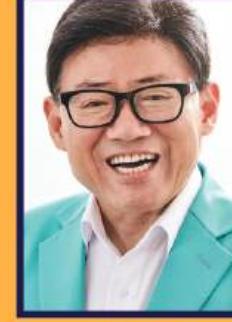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웃음이 만납니다.”

무성영화 변사 영화제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문의연락처
월 - 금 / 9AM - 5PM
888.847.3098



이시대 마지막 변사
최영준



천재 개그맨
엄영수

〈홍도야 울지마라〉 & 〈검사와 여선생〉 / 〈엄영수 개그 쇼〉

2025년 8월 5일 & 6일

CGV BUENA PARK at THE SOURCE OC

6988 Beach Blvd, Suite B301, Buena Park, CA 90621

3회 공연 중
1회만 선택 가능

8월 5일(화)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2시
1부: 검사와 여선생
2부: 엄영수 개그 쇼

8월 6일(수) 오후 7시
1부: 홍도야 울지마라
2부: 엄영수 개그 쇼

주관

문화기획 에이콤
SINCE 1990
ART COMMUNICATION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1인당 1장만 수령 가능합니다 (한 공연 시간)



이승만은 왜 기독교 기반으로 국가 세우고자 했나?

김철홍 교수,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세미나서 고찰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신약학)가 10일 서울 서현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제316회 월례세미나에서 '우남 이승만의 기독교 개종과 기독교가 그의 정치사상에 준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1945년 11월 28일 조선기독교남부대회 주최로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가 열렸을 때 우남(雲南) 이승만은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말했다"며 "기독교를 기초로 하는 국가건설은 해방 이후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우남은 1899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래 줄곧 독립 이후 등장할 신생 국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그런 점에서 우남은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정치사상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happened-to-be-a-Christian)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란 토양 위에 자신의 정치사상을 뿌리

내리고, 독립운동과 국가운영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고취하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정치사상가, 기독교 정치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만들었는지, 그의 기독교로의 개종 과정 등을 살피며 고찰했다. 김 교수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남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정교일치의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를 국민 교화의 근본으로 삼는 세속국가였다"며 "그가 주목한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간 교화(教化)'의 가능성이었다. 법과 제도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정신의 혁명을 경험한 새로운 인간 없이는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남은 기독교적 정신 혁명이야 말로 진정한 정치 혁명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고, 자유민주주의는 개신교의 정치적 표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남이 생각한 정신의 혁명은 현대어로 옮기면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스틸컷 속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나는 인간의 내면의 변화이며, 그것은 곧 관점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그 개인이 독립적인 자유인으로서 각성하여 자유·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며 "교회가 그런 개인을 양산(量産)해내지 못한다면 신생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

그는 "우남은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기초가 된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기독교가 앞으로 독립할 국가에 잠재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의 결론부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여 생겨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는 매우 '미신적 인' 설명에 떠물려 있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우남이었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독교의 관계를 아마 아래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는 자유인(自由人)을 가르치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자유인의 개념에서 자유의 이념(자유주의)이 생겨났고,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만들어 번영한 국가를 이룬 미국처럼 우리도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에 의한 경제와 법치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겨난 이윤은 즉각적인 물질적 만족을 위해 소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연기하면서 근검하게 사는 기독교적 생활패턴, 법의 요구를 상회(上廻) 하는 높은 기독교적 도덕 기준 등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김진영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외친 “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 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작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국제 인권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를 강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로 북한으로 송환함으로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 송환의 위험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

후 약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되어서, 강옥에 수감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며 "중국은 탈북과 체결한 여러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송환을 정당화한다. 1998년에 체결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협력 협정'에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우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통해 송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법, 특히 1951년 난민기구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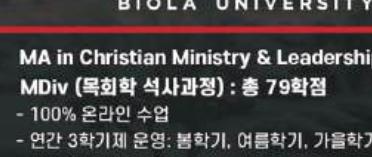
들 국제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불송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북한과의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OI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송환이 북한에서의 고문, 처벌, 심지어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은 강제 송환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처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북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북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북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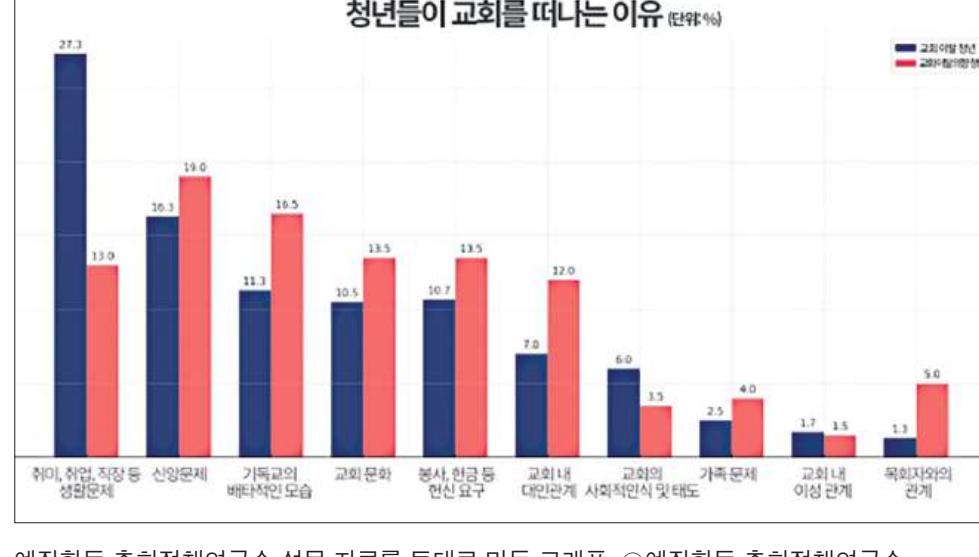
“교회 떠난 청년 절반, 현재는 무종교”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15일 ‘청년부흥: 진단과 대책’ 포럼 개최

지난 15일 대전 판암장로교회(담임 흥성현 목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소장 이국진 목사)가 개최한 ‘청년부흥: 진단과 대책’ 포럼에서는 청년층의 교회 이탈 실태와 그 배경, 그리고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이 데이터로 공유됐다.

조사 결과, 이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생활문제’(27.3%), ‘신앙문제’(16.3%),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11.3%) 등을 이탈 사유로 꼽았다. 반면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신앙문제’(19%),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16.5%), ‘교회문화’(13.5%), ‘봉사·헌금 등 헌신 요구’(13.5%)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청년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심각하다. 교회 이탈 청년의 51.3%는 무종교인으로 전환됐고, 27.3%는 타종교로 개종했으며, 21.3%는 ‘가나안 성도’(교회는 떠났지만 기독교인 정체성을 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 가정의 종교는 기독교 가정이 46.3%로 절반에 육박해, 신앙 전승의 부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설문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

재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신앙문제’의 세부 양상을 보면, 이미 떠난 청년 중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비율은 52.3%, ‘확신 없는 신앙’은 48.0%, ‘구원에 대한 의구심’은 41.0%였다. 교회를 떠나길 고민하는 청년들도 ‘종교에 대한 회의감’(65.0%)과 ‘확신 없는 신앙’(61.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정체된 신앙 성장’(53%)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았다.

교회 이탈 청년 가운데 현재 기독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해, 10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구원 확신이 없는 교회 이탈 청년들에게 과거에는 어땠는지 물었을 때 48.5%는 과거에도 확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과거에 구원 확신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24.8%에 그쳤다.

또 교회 이탈 의향 청년 중에서는 34.4%는 과거엔 구원 확신이 있었고, 43.8%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이탈 청년과 이탈 의향 청년들 가운데 애초부터 신앙적 기초가 부족했던 이들이 점차 교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에서 목회데이터연구

소 지용근 대표는 “조사 대상 청년의 45% 가까이가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이 마지막 신앙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탈 방지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출석 패턴 변화, 소속감 약화 등 초기 신호를 조

체를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가나안 성도로 남는 경향이 많다”며 “단순히 ‘교회로 다시 오라’고 외치기보다는 SNS 콘텐츠나 온라인 소그룹 등으로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도록 돋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특히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혈육 가족이 없더라도 교회가 공동체로서 정서적 돌봄을 제

공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계 형성 소그룹과 멘토링, 신앙 동반자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이 외롭지 않게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년 예배로 이동한 청년이나 2030세대가 조용히 거리를 두는 정후는 이탈의 전초 현상이라면서 이를 민감하게 포착해 신속히 개입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영성 훈련과 체계적인 복음 교육으로 신앙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 청년 다수는 신앙 자

노형구 기자

나이지리아 풀라니 무장세력, 기독교인 5명 살해·110명 납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두나(Kaduna)주 카주루(Kajuru) 지역에서 무장한 풀라니(Fulani) 유목민들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또다시 잔혹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경, 풀라니 무장 세력은 캄파니(Kampani) 마을의 복음주의 교회(ECWA)에서 진행되던 성경공부 및 기도회 도중 기습 공격을 벌여 5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시켰다.

CDI는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카주루와 인근 카치아(Kachia) 지역의 많은 마을은 매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농사조차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0건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기독

교인이 거주하는 바우다(Bauda), 웅그완 야시(Unguwan Yashi), 웅그완 물기(Unguwan Mulki), 마키알리(Makyali), 웅그완 무디 도카(Ungwan Mudi Doka), 웅구와 로고(Unguwar Rogo) 마을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8일 새벽 1시경에는 바우다 마을이 급습당해 쿠파나(Kufana) 구역장 오바다이아 이구다가 납치됐다. 지역 대표 스티븐 마이코리는 “이 같은 폭력은 주민들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납치와 살해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 12일 새벽에도 웅그완 야시, 마키알리, 웅그완 무디 도카 3개 마을에서 총 10명이 납치됐다. 마이코리는 “웅그완 야시에서는 6명이, 마키알리에서는 2명의 여성과 2명의 종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웅그완 물기에서는 복음주의 교회 소속 목회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

날 하루에만 38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으며, 8명은 탈출했지만 30명은 여전히 억류 중이다.

이어 3월 10일에는 부다(Buda) 마을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61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고, 1월 18일 아가마(Agama) 마을에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주민들이 납치됐다. 이들에 대한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웅구와 로고 마을에서는 교회 건물과 기독교인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탔다. 주민 자마니 이샤쿠는 “이 같은 공격은 새해 첫날부터 계속돼 왔다”고 증언했다. 주민 이샤야 온누심은 “무장 풀라니 세력이 교회를 약탈하고 목사관까지 불태웠다”며 “농산물과 재산을 약탈한 후 6채의 주택도 파괴했다”고 전했다. 주민 조나도는 “정부가 이런 잇따른 공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깊은 분노를 나타냈다.

영국 의회 산하 국제종교자유소위

원회(APPG)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풀라니는 수백 개 씨족으로 구성된 수백만 명 규모의 무슬림 공동체로, 일부는 급진 이슬람주의 이념에 동조해 보코하람(Boko Haram)이나 ISWAP(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의 전략을 모방하며 기독교인을 노리고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종교 박해를 넘어, 사마화로 생활 기반을 잃은 풀라니들이 기독교인 토지를 강제로 점거하고 이슬람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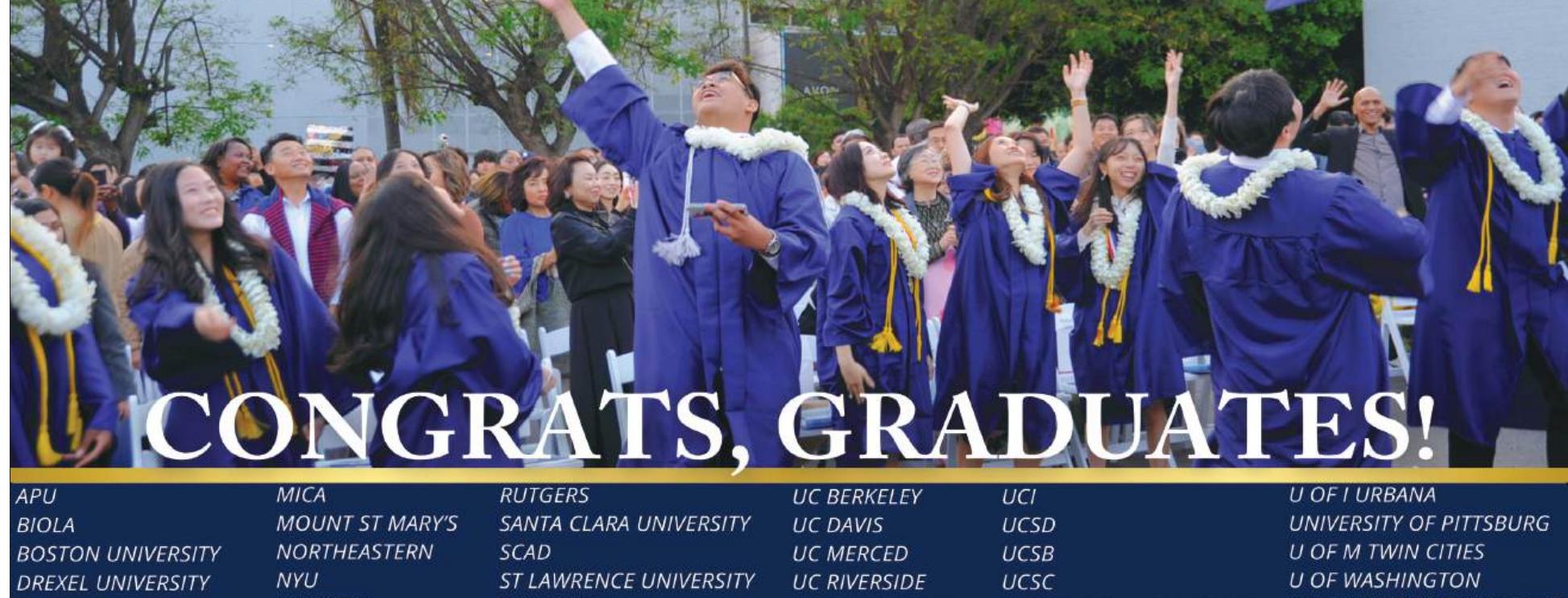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하는 국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사망한 4,476명의 기독교인 중 3,100명(69%)이 나이지리아에서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반기독교 폭력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북중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풀라니 민병대가 농촌 지역을 습격해 다수의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보코하람과 ISWAP 등 지하디스트 세력이 활개를 치며 납치, 성폭행, 기독교 마을 습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몸값을 높인 납치도 증가 추세다.

여기에 더해 북서부 지역에서는 라쿠라와(Lakurawa)라는 새로운 지하디스트 무장 단체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자마마 누스라트 알이슬람 월무슬리민(JNIM)과 연결돼 있으며, 첨단 무기를 갖추고 급진 이슬람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픈도어즈는 나이지리아를 2025년 세계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7위로 분류했다.

최승연 기자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APU
BIOLA
BOSTON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LMU
MICA
MOUNT ST MARY'S
NORTHEASTERN
NYU
PARSONS
PEPPERDINE
RUTGERS
SANTA CLARA UNIVERSITY
SCAD
ST LAWRENCE UNIVERSITY
SYRACUSE
TEMPLE
UC BERKELEY
UC DAVIS
UC MERCED
UC RIVERSIDE
UC SANTA CRUZ
UCLA
UCI
UCSD
UCSB
UCSC
U OF ARIZONA FLAGSTAFF
U OF I CHICAGO
U OF I URBANA
UNIVERSITY OF PITTSBURG
U OF M TWIN CITIES
U OF WASHINGTON
UNIVERSITY OF THE PACIFIC
VIRGINIA TECH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120명 사망한 텍사스 홍수,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슈아 아놀드 작가의 기고글인 ‘텍사스 홍수는 왜 발생했는가?’(Why did the Texas floods happen?)를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조슈아 아놀드 작가는 워싱턴 스탠드의 선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스와 논평에 모두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 중부에 발생한 침울한 홍수로 인해 최소 12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28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 헬번트리 지역에 약 30cm 가량의 폭우가 내린 뒤, 과달루페 강(Guadalupe River)은 단 45분 만에 8미터 가까이 불어나 강가의 피서객들과 여름 캠프 참가자들을 덮쳤다. 그중 한 곳인 기독교 여성 캠프 ‘캠프 미스틱(Camp Mystic)’에서는 캠프 책임자를 포함해 27명의 참가자와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슈아 아놀드 작가. ©washingtonstand.com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몇 가지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었다. 그 것은 곧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라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인간이 악하게 의도한 일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증언한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창세기 50:20)고 말했다. 바울은 이를 더욱 확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마서 8:28)고 보증한다. 그 ‘모든 것’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마서 8:35)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자비롭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놀라운 점은 일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반역자, 곧 모든 인류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로마서 9:16). 심지어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언약을 세우셨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9:11). 이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 즉 하늘을 향해 활이 거꾸진 형태이다 — 전쟁의 무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다.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섭리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설명하실 의무도 없으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로마서 9:20). 읍기의 경우, 고난의 시작에 대한 하늘의 장면(읍기 1-2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읍기에게 직접 설명하시지 않으신다.

이러한 제한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설명되지 않은 고통과 마주하며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신앙 범주인 탄식(lament)을 배운다. 탄식은 시편 곳곳에서 발견되며,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관통하고, 선지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탄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아뢰고, 말씀을 통해 그 고통을 해석하며, 주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시 불드는 기도이다(참조: 마크 브루에고프의 『Dark Clouds, Deep Mercy』).

탄식은 반드시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천 년 전 다윗도 같은 원칙을 노래했다. 백악관 신앙자문실이 이번 텍사스 홍수에 대해 발표하며 인용한 말씀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이들에게 이 같은 신학적 반주가 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에 닿는 쓰라린 연고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온유하고 낫은 목자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함께하신다. 때로는 그 쓰라림이 가장 필요한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

1873년, 네 딸을 대서양 횡단 여객선 사고로 잃은 시카고의 사업가 호레이시 스파포드는 이렇게 썼다.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인도하고, 고난이 물결처럼 물어쳐도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슬픔이 흥수처럼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enceg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후 11:30
EM예배 1부 오후 9:45/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이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714) 871-8320/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도부 오후 9:30, 11:30
한국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밸리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천양예배 오전 9:30(수)
중복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성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후 11:00
천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부예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령청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후 11:00
천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주일) 새벽 6:00

한기홍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주일) 오후 6:00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화)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美 개신교 교회, 예배 중 '현금바구니 돌리기'가 가장 일반적



©Pixabay

미국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여전히 예배 중 현금 바구니나 접시를 돌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최근 미국 개신교 목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4분의 3은 예배 중 현금 접시나 바구니를 돌려 실물 현금을 모은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교회는 예배 전후에도 현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예배 중 현금 접시를 돌리는 것으로, 전체 목회자의 64%

가 이를 주된 현금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석 인원이 50~99명인 중소형 교회의 경우 이 비율은 68%로 더 높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대표는 “많은 교회가 디지털 현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예배에서 현금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교회는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금 방식을 둘러싼 교단 간 차이도 눈에 띈다. 루터교회와 감리교회는 현금 접시를 돌리는 비율이 각각 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장로교/개혁 교회(65%), 침례교(64%), 오순절 교회(61%), 회복주의 운동 교회(43%), 비교단 교회(36%)였다. 복음주의 교회보다 주류 교회가 현금 접시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교회 목회자의 74%는 현금 접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지만, 복음주의 목회자는 60%에 그쳤다. 인종별로는 흑인 목회자의 76%가 이 방식을 선호해 백인 목회자(63%)보

다 높았다. 예배 종료 시점에 현금을 돌리는 교회도 있었다. 전체 목회자의 10%가 이에 해당하며, 침례교 목회자는 1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루터교는 6%에 불과했다. 예배 후 현금은 교인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에서 가장 드물게 나타났는데, 단 6%만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금 접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입구나 출구에 설치된 현금함(현금 박스)이다. 전체 목회자의 40%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음주의 교회(45%)가 주류 교회(30%)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 교회가 48%로 가장 높았다.

비교단 교회는 현금함 설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침례교(43%), 오순절 교회(41%), 장로교/개혁 교회(40%), 루터교(32%), 감리교(23%)가 이었다. 젊은 목회자일수록 현금함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45세 미만 목회자의 46%는 현금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는 예배 종료 시 성도들이 나갈 때 현금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답했다. 예배 종료시 현금하는 방식은 대형 교회에서 더 흔했으며, 출석 인원 250명 이상 교회의 25%, 100~249명 교회의 20%가 이 방식을 사용했다.

맥코넬 대표는 “현금함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을 돌려하는 방식”이라며 “일부 교회는 다른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다른 교회는 죄책감이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오직 현금함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실물 현금이 여전히 주류인 가운데, 디지털 현금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경 기자

스페인 종교자유 단체, EU에 '기독교 혐오 대응 특별조정관' 신설 촉구

스페인의 한 종교자유 옹호 단체가 유럽연합(EU)에 기독교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정관(Special Coordinator)’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스페인 종교자유관측소(OLR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성명을 보내 유럽 내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혐오 대응을 위한 기준 전문직과 동등한 수준의 기독교 혐오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리아 가르시아(María García) OLRC 대표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다른 형태의 종교적 혐오에 맞서 보여준 노력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대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유럽 내 기독교인 차별 및 혐오를 주제하는 국제단체인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차별 관측소(OIDAC Europe)’의 2024년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35개국에서 총 2천4백44건의 기독교 혐오 범죄가 보고됐으며, 이 중 232건은 괴롭힘, 위협, 물리적 폭행 등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OLRC는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OLRC는 “최근 몇

주 사이에 파리 성심 바실리카 제단에 ‘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를 외치며 난입한 사건,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발생한 교회 방화 사건, 로드가우에서는

십자가를 흉기로 사용한 성당 보좌 사제 공격 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OLRC는 특히 2023년 1월 25일 스페인 알헤시라스에서 발생한 보좌 사제 디에고 발렌시아 콘트레라스(Diego Valencia Contreras)의 피살 사건을 강조했다. 그는 테러범 야신 칸자(Yassin Kanza)에 의해 산 이시드로 성당 밖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 9일, 발렌시아 인근 수도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수도원에 난입해 76세 수도사를 살해하고 여러 수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2023년 OLRC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내 예배당과 기독교 상징물에 대한 공격은 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아 대표는 “이러한 살인과 교회에 대한 공격 앞에서 유럽연합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른 종교적 혐오에 맞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현신으로 대응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OLRC는 유럽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청원에 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이기도회(미지방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한글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토) 오후 6:30(일)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imc.org

김지성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최현규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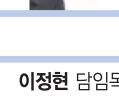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을 등이로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노트群体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화-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임종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6:00(화-토)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치킨 오방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

미국 대륙 횡단 선교 프로젝트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 횡단 프로젝트 'CALL 2025'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가 주최하고, 미국 각 지역의 후원회와 교회,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역이다.

참가자는 약 60~120명 규모로, 대한민국 청년들로 구성됐다. 참가자 중에는 크리스천은 물론 비기독교인, 탈북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아칸소,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뉴저지지를 지나 뉴욕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감리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남가주 일정

7월 10일, 북가주에서 출발한 청년들이 LA 감리산 기도원에 도착하며 CALL 2025의 첫 남가주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장 10시간에 이르는 사막길을 지나 도착한 청년들은 빠르게 물든 돌산과 장엄한 일몰 앞에서 감탄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동의 순간을 나눴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샘신 목사)는 청년들을 따뜻하게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 횡단 프로젝트 'CALL 2025'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 남가주 교협

맞이하며, 바비큐와 김치로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식사 후 간증 시간에서는 샘신 목사가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고, 참가자들은 경청하며 진지한 질문과 나눔을 이어갔다.

샌디에이고부터 나성영락교회까지

이후 방문단은 샌디에이고 Sea World 탐방, 은혜한인교회 예배 참석, 나성영락교회 청소년들과의 교제 및 예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미서부 지역 일정은 남가주 교협과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샘커뮤니티교회, 갈보리선교교회, 평화교회, 주님의 손길교회, 아

메리카연합재단, 미주성시화운동 본부 등 여러 교회와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이들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숙소, 식사, 차량 등의 섬김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여정을 전폭 지원했다.

남가주교협은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현신해주신 스태프들과, 버스 렌트를 위해 약 4만5천 달러를 후원해주신 후원자,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신 개인과 교회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섬김과 후원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남준 joon@gemgem.org 714-710-2674, 심현태 hyuktae@gemgem.org, 630-200-5965

교회 단신

▶ 구영순 독창회 미주평안교회

7월 19일(토)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이스라엘선교회 주최로 구영순 독창회가 열린다.

▶ 선한목자교회 7/20(주일) 창립 50주년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 Chino Hills 본당에서 창립 50주년 감사예식을 진행한다.

▶ 충현선교교회 설립 40주년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개최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에베소서 6:10-13)를 주제로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가 18일(금) 저녁 7시 30분, 19일(토) 새벽 5시 20분과 저녁 7시, 20일(주일) 예배를 이끌게 된다.

▶ 은혜한인교회 워십 컨퍼런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7월 18일(금) 금요 성령 집회, 19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20일(주일) 4부 예배 때 조승현 목사(뉴웨이교회 담임), 심웅보 전도사를 초청해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주제로 워십 컨퍼런스를 연다.

▶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성경해석학 교수 진과 함께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제자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난>이며 7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전 6시, 20일(주일) 1~4부 예배 때 진행된다.

▶ 동양선교교회 55주년

동양선교교회가 7월 27일 창립 55주년을 맞는다. 7월 27일(주일) 1부 예배(오전 7:30), 및 2-3부 연합 예배(오전 10:30)를 드린다.

▶ 사랑의 빛 선교교회 부흥회

8월 8일(금)-8/10(주일)까지 '갈망, 주를 향한 목마름'을 주제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초청해 본당에서 부흥회를 연다.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7시, 주일 1-3부

▶ 살롬합창단 단원 모집

살롬 합창단(단장 조영원, 지휘 김현정)이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은 매주 목 오전 11:00-오후 12:30까지 가든그로브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 모여 연습한다.

문의: 조영원 단장(714-351-4499)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FREE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설,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BTSSolar

구봉주칼럼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양육이라는 단어는 육아양육이라는 표현처럼, 신생아와 같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청년 또는 장년에게는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20세가 넘으면, 스스로도 다 자랐다,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할지 몰라도 돌봄을 받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돌보아 준다” 혹은 “양육하고자 한다” 하면 겉연쩍어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양육이라는 단어는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듣고 살아야 할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인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의 육신의 성장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앙양육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미 어엿한 목회자가 된 디모데를 여전히 영적으로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를 직접 만나고 싶었으나,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고 훈계하였습니다. 그러한 권면과 훈계가 담긴 성경이 바로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며 돌보고자 했던지, 당시 위장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까지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바울의 서신서들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편지임과 동시에 특정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개인적인 권면을 편지에 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양육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성장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설교자나 개인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의 설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라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것 만을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누군가의 하는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요점과 취지가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과 부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설교를 접하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가르침과 선생을 찾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분들의 설교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협력자의 역할을 할 뿐, 사실상 배우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양육은 내가 몰랐던 부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일깨워주고 설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엄하게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양육은 계속적인 지지와 호응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깨닫

는 찰림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떨림이 공존하는 고도의 영적 성장 메커니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신앙적 가르침은 자신의 취향, 사욕을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듣기 싫으면 그만 듣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양육을 경험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양육에는 일방적인 가르침을 드는 것보다 아버지나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로써,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 배움을,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생기는 생채기를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권면과 조언, 소그룹 목자의 돌봄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까? 양육되어,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면서도 동시에 양육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훈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코흘리고 주위를 어지럽히는 영적 어린아이는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평생 양육 받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유철 칼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목적, 동행

서”(계22:20) 재림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재림을 믿는 올바른 휴거믿음은 ‘D-day’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아직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림에서도 ‘D-day’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 시험일, 회사 면접일, 여행 계획일 등 ‘D-day’가 중요하듯이 성령을 받기 이전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이 언제인지, ‘D-day’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1:7) D-day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3친구가 풀무 불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풀무불속에서도 동행하셔서 웃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역사의 티이밍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회당장아이로는 땀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집에 오시기를 바랐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기를 원했

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 때, 상처 받기 전이나 절망하기 전이 하나님 역사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풀무불이든 사자 굴이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망보다 크신 분으로 어떤 것도 힘들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둑고 뛰는 경기를 잘 하려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역사의 주관자로 내가 주님께 맞추면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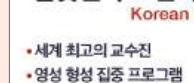
우리는 이것을 ‘Not I, But Christ’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본능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목적, 주님과 동행을 잘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립!

하늘바라기

나의 별 – 김은주

한공간이 있다
시간의 공간이 있고 관념의 공간이 있으며
영적 공간도 있다
나는 그 공간을 안드로메다라고 부른다
나의 쉼의 안식처인 듯 하다
때로는 그 공간을 나의 별이라 지칭한다
나의 별에는 인자한 분이 계신다
한없이 미소 짓고 안아 주시는 분이다
때때로 나는 별을 찾는다
슬플 때도 찾고 기쁠 때도 찾고 소망할 때도 찾는다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 주시며 소망할 때 비전을 주신다
나는 그 별을 참 좋아한다
아니,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사무치도록 그립다
사랑하는 나의 공간은 다른 친구도 초대하고 싶다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의 공간이다
맑은 눈과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오늘 하루를 내려놓고 잠드는 이 순간 나의 별을 찾아간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체널: “탈보” 검색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보신학교” 검색

설립적인 사역 대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회(BA), 목회학회(M.Div), 신학회, 선교학회,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el(626)227-3454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mb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주제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성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전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국부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info@gatewayseminary.org

www.gatewayseminary.org

www.gatewaysem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심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김영한 칼럼

예수 죽음의 의미 – 대속(代贖)의 죽음(VI)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5. 예수 죽음의 독특성: 음부(陰府)와 대결하심

예수의 죽음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체제에 순응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조용히 죽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지 아니했다. 예수는 구약성경의 죽장들(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처럼 천수(天壽)를 다하고 평온히 죽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노에 내지 흉악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실상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 예수는 그처럼 신뢰했던 아버지에 의하여 벼름을 당하는 데 대한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셨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평온했고, 죽은 뒤에는 그것으로 끝났고 아무 것도 없이 그의 삶은 종결되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의 경우 그를 순식간에 미화하여 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드는 이상한 국민감정이 일어났다. 심지어 기독교 진보주의 목회자들은 그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같이 다루면서 많은 신앙적 혼선을 가져왔다. 실상, 노무현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전직 지도자의 절망적인 현실로 피요 자살이자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

발전을 위해 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모방 자살을 부추긴 것이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전직 지도자가 자살하는 불안정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2009년 6월 18일 개신교 진보주의 목사 1,024인 시국선언에는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승실대 대학원장이요 한국교회법 연구원장인 김영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며,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은 자살의 흔적이다”고 양자를 구분하였다. 투신자살한 자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나 형사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형사 피의자의 신분이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살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 1,024인 시국선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원로 장로인 김영훈은 “만약 비성경적 내용의 시국선언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면 목사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의 피와 부엉이 바위의 피는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하나님 아들이 흘린 인류대속을 위한 희생의 피나, 후자는 일개인이 자처한 연루된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피다. 전자는 인류의 대속을 가져 왔으나 후자는 기소 중지를 통하여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안전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예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예수는 음부(Gehenna, hell), 죽음의 세계에까지 내려가셨다. 어느 인간도 실제로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는 음부의 세계에서 죽음과 대결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음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음부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권세 아

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토해낸 것이다. 아들은 그 본성에 있어서 불가사직(不可死的)인 하나님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는 죽음을 죽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다음 같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죽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5-56).

6. 속죄제물이자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제자들에게 종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가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의 승천 후 보내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다시 사셨고, 그는 세상의 구주이시다!)을 전파하였다.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나타났다.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믿고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종교이다.

이미 중동 아시아와 고대 사회의 여러 종교에서 짐승의 피를 바치므로 제사자의 죄가 속죄를 받는 의식이 있어왔다.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구약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속죄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예수의 속죄는 역사적으로 일회적이며 유일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유일회적으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속죄자가 되셨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애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다(사 63:4-5). 아무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는 짐승제물이 되풀이된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들로부터 나온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흡이 있어 온전하지 못하며, 제사드리는 자들도 허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브리서 저자는 증언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히 10:11). 이 구약의 제사는 다가오는 실제의 예표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히 10:1).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들의 제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단 한번만에 결정적인 (once for all) 제물이 되셨다. 하브리서 저자는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뜻을 족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12)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4). 예수는 희생되시기 때문에 승리자시다(Victor, quia victima). 예수 그리스도는 장조의 말씀이실뿐 아니라 스스로 유일한 속죄자요 구속자이신 것이다.

속죄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써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논리다. 속죄의 신비는 하나님인 인간의 눈 높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로 수행되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써는 결코 밝혀 낼 수 없는 신비다. 속죄의 신비는 섭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의 속죄행위로서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계속>

김한요 칼럼

가정 같은 교회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가정’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잘 찾아 볼 수 없지만, 가정 분위기 나는 Friendly's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전 Claim Jumper 식당을 갔는데, 모

처럼 짐밥 같은 미국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집에 다녀오면 가져오는 험메이드 apple cider, chicken pot pie 맛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의 마음에 엄마가 만든 짐밥과 같습니다. 대학 갔다가 돌아온 딸이 엄마가 만든 밥을 찾듯이 말입니다.

미주 동부에서 목회할 때, 교회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가정을 닮은 곳이고, 가정 역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닮은 곳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도 성격과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교회도 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성격이 다 달립니다. 인격이 부족하여 이기적인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착하고

고 인품이 갖추어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상적이고 완벽할 수 없듯이,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다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회초리가 있듯이, 교회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들이 이 뭘 아나?” 이런 말로 아이들이 칼 가지고 장난치며 동생 얼굴을 긁는 일을 괜찮다고 할 부모가 없듯이, 교회 역시 연약한 지체에 상처를 입히는 무분별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등 속에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자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를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합니

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엄마파 아빠파 나뉘어 싸운다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격차가 없어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됩니다. 49년된 교인이나, 지난 주 온 교인이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짐안의 장남이, 이제 태어난 늦둥이를 차별하여 가족 모임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식구가 된 사위와 며느리를 낳셨다고 차별하고 내치는 가정이 있다면 비극입니다.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지체를 가족 같이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미숙가루가 잘 풀어져야 제 맛이 나듯이, 서로가 잘 용해되어 하나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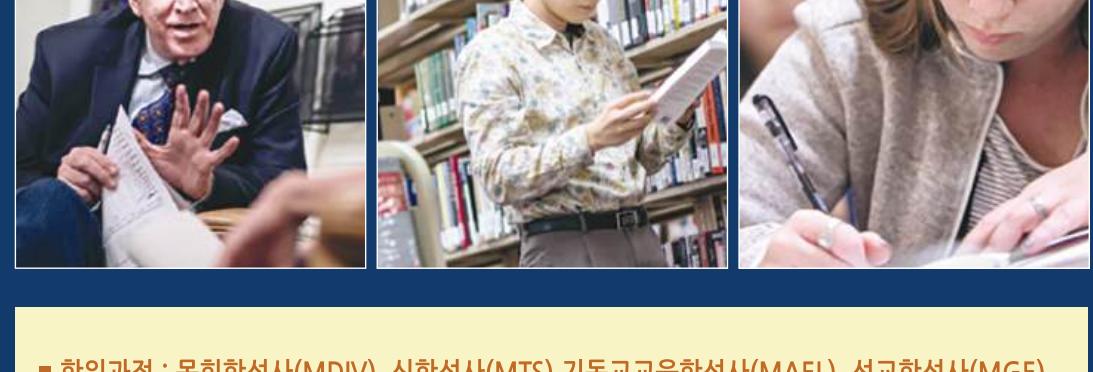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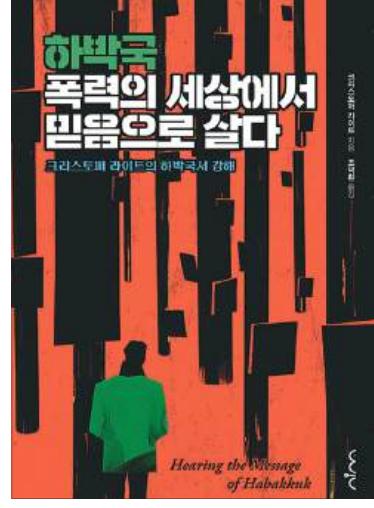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 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이미애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한주봉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이현우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중보기도회 새벽기도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송재봉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박지상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5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카오 ID : 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제임스김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김상현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양홍규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친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김창곤 담임목사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차권희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cd@hanmail.net	강은덕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낮 12:00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정용암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박은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정달성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2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6:00(화)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서민수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장현석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2:00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예스라김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오전 8:00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이석기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김요한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정찬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표희곤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류연주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양수용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조인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오전 7:30 오전 5:30 (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김용근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정하이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오충성 담임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사는 법

‘나라에 정의를, 나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조덕환 역 | 시들지않는소망
272쪽 | 17,500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아, 최근 몇 년간 겪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박국서는 그런 현실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박국서 강해는 그러한 점을 적실히 잘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돋는 책이다

‘시들지않는소망’이라는 출판사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2024년 4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티렌스 E. 프레타임)에 이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출판사에서 나온 두 번째 책이기 때문이다(2024. 12).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러 권의 구약 주석을 썼고(BST 시리즈, UBC 시리즈), 성경 윤리와 선교에 관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구약의 경제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나 보다), 올소울스(All Souls)교회 소속 학자이자 영국성공회 사제다.

하박국의 역사적·문화적·신학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선지자가 바라보고 질문했던 상황을 오늘날 독자가 처한 상황과 연결하고, 하박국이 강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결단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하박국이 기록된 시대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를 모두 포함하는, 만물이 창조된 시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독자를 권면한다. 출판사 이름뿐 아니라 저자, 나아가 하박국 자체가 생소한 독자에게는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이 책은 하박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폭력이 난무한 당시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교훈을 제시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만 누구 또는 무엇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볼 것인가는 개인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개인보다 체제,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의 폭력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이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주목하는 죄가 이스라엘 지도층과 그들이 만든 기

울어진 사회적 경제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고 폭력적인 악을 범하게 된 근본 이유를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라이트의 다른 책을 접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말끔히 사라질 것 같지만(혹은 그 반대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서 개인이 범하는 폭력에 관해 균형 있게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폭력만 탓하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기 마련이니).

하박국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구성된 책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폭력에 잠잠하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그에 관한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을 준비했다고 대답하신다. 선지자는 이어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답하시는 것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며 온전한 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시는 모든 일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할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굳게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는 하박국의 결론, 즉 선지자의 고백이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정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매진할 것입니다(252-253쪽).”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자가 하박국 마지막 구절인 3장 19절을 설명할 때다. “나의 밭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수동적 기다림과 버팀이 아니라 능동적 뛰어들으로 설명한 것이다. ‘높은곳’을 우상 숭배하던 산당으로 해석한 저자는 하박국이 폭



▲다니엘과 하박국이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서와 공동번역에만 있는 ‘다니엘서 14장’ 내용이라고 한다. ©위키

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동안, 그분을 힘입어 계속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끗듯이 뛰어오르는 사슴처럼, 눈앞의 세상은 우상숭배와 범죄가 만연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교훈이 굉장히 적실하고 유익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흰색과 흰색의 향이 달긴 기도를 하는 사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잘 알고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권면으로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책을 마무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 어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려 온 네가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노라
루기 2:12



May you be richly
rewarded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RUTH 2:12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담임목사 청빙!

창립 40주년을 맞는 미국 동부 뉴저지 파라마스에 위치한 PCUSA 소속
참빛장로교회는 몸되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4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목회 5년 이상 경험 있으신 분 (부목사 포함)
- 한국어/영어로 소통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CLC PDF 추천
(영문) <https://pcusa.org/resource/clc-personal-discernment-form>
(한글) <https://pcusa.org/ko/resource/gaein-sebu-someyeong-sigbyeoel-peulopil>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2명의 추천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 접수마감 8월 15일까지

■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심사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청빙 절차 마치는 즉시 폐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빙 결과는 개별통지 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

E-mail: pnc.truelight@gmail.com

참빛교회 청빙위원회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한국어/영어

<p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기산 김준근의 『천로역정』 삽도

〈천로역정〉으로 인생 바뀐 길선주 목사의 〈만사성취〉

길선주, 천로역정 서사 차용해
‘해타론’ 이어 ‘만사성취’ 발간
한국인 입장 천로역정 재해석
삽화 11점 줄거리와 의도 설명

구한말 벽안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널리 퍼져갔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을 짓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문화를 보급하였다. 제일 선교사의 『천로역정』도 그런 시대적 배경 아래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기독교 전파에 획기적 기여를 했다.

한국인 중 『천로역정』을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삶 자체까지 송두리채 바꾼 사람도 출현하였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길선주 목사(1869~1935)였다.

길선주는 친구 김종섭이 선물한 『천로역정』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책을 읽는 내내 눈물로 책장을 넘겼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셈이다. 길선주는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도교(道教)와 관성교(關聖教)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천로역정』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뚜렷했던 것 같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형용한 『천로역정』 서사구조를 차용하여 그는 한국인 최초 기독교 저작인 『해타론』(解悞)

論)(1904)을 집필하였고, 이어 『만사성취』(1916)를 발간하였다.

『만사성취』는 『해타론』의 증보판으로 ‘연초(煙草)’와 ‘해타의 행동’ 사이에 ‘아편(鴉片)’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한국인 입장에서 『천로역정』을 새롭게 해석한 책을 펴낸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챕터 구별이 없던 것을 28개 장으로 나눈 다음 소제목을 붙였으며, 11점의 삽화를 넣어 책의 이해를 돋우고자 했다. 11점의 삽화는 전통 산수화에서 볼 수 있음 직한 모습을 취하고 있거나 정자, 누각, 성문 등 전통적인 건물이 등장하고, 복식은 김근중의 풍속화에서 만나는 재래 복식과 함께 관을 쓴 인물도 볼 수 있다.

누가 삽화를 그렸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툰 표현으로 미루어 미술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 같지는 않고 지인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추측은 길선주 자신이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길선주 목사가 일찍이 문화 목회에 관심을 기울였고 3남 길진섭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귀국하여 활약한 인물로, 집안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의 심증에 그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기에 확증할 수는 없다.

책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 여러 연구물이 나와 있으므로, 삽화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을 하기로 하자. 먼저 『만사성취』의 삽화는 『천로역정』처럼 글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미지는 장식으로 기용되었다 기보다 내용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줄거리를 함축적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가령 ‘사로(思路)’를 보면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주저앉은 채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만일 ‘사로’에서 ‘취주로’, ‘연락로’, ‘음란로’, ‘자만로’, ‘이심로’, ‘급심로’로 빠질 경우 나오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길선주는 ‘정로’(正路)로 들어서서 ‘모안로’에서 계으름을 극복하고 ‘고난산’을 넘어감으로써, 지상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성취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저 멀리 구름이 지나가는 풍경을 배경으로 들판

에 주저앉은 인물을 포착시키는 것은 일반 산수나 인물화에서는 볼 수 없는 구도이다. 그림 제작자는 전승된 동양화 전통에 엄마이기보다, 책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덕분에 삽화 ‘사로’를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양상은 〈다수산〉에서도 접혔다.

‘다수산’에 오르는 사람마다 졸음에 취해 잠에 빠지게 된다. ‘산의 경치’에 마음에 빼앗긴 인물로 미루어, 안목의 정욕 내지 세상 영화에 심취된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수산’ 주위에는 나무와 개천, 꽃이 피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리수’를 뜻하는 나무의 바람을 맞으면 참 이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기천’이라는 물을 마시면 기운이 없어져 움직이기 어렵게 되며, ‘훈미화’라는 꽃의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된다. 저자는 시험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갖는 안락과 여유가 자칫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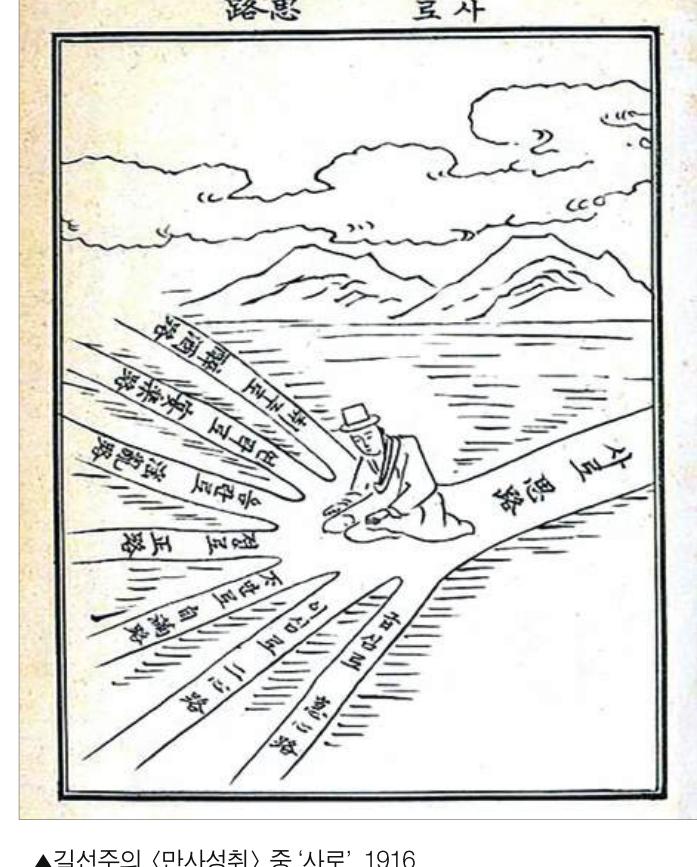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만사성취』는 내용상 계으름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작품이 나온 시기는 외세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가 저들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일제의 경제침탈, 을사늑약, 고종 폐위, 군대 해산, 한일학병, 일제의 무단통치, 105인 사건 등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앙드레 쇼미드(Andre Shumid)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격류를 헤쳐가는 연약한 배’로 묘사한 바 있다.

한일합방은 길선주에게도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선천의 신성중학교 교사였던 장남 길진형은 ‘105인 사건’으로 일경(日警)의 모진 고문을 받아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고, 길선주 목사 역시 민족대표 중 한 명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책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은 제2장 ‘소원성’ 삽화에서

▲길선주의 〈만사성취〉 중 ‘사로’, 1916.



엿볼 수 있다. 단층 누각과 성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일군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박정세 교수는 이 그림이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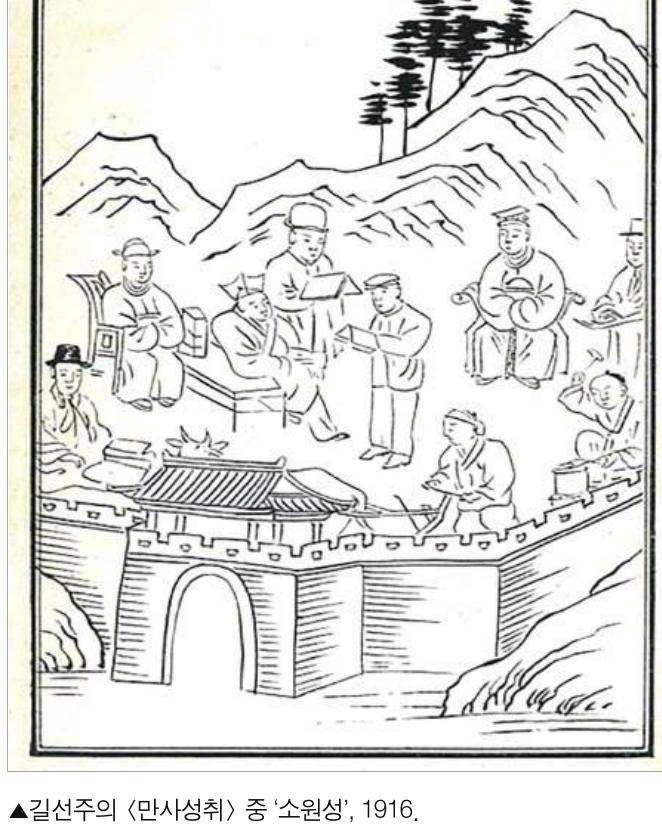
그림을 보면, 무단 식민정책을 펴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穀)로 추정되는 인물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듯 다리를 꼬고 있는데 비해, 화면 우측에 조선 관복을 입은 순종(純宗)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공손히 두 손을 모은 포즈와 대조된다.

권력의 중심에 선 데라우치와 달리 권력을 잃은 순종의 시선은 넌지시 데라우치 쪽을 향해 있다. 주위에 밭을 갈고 농부, 망치질을 하는 대장장이, 선비를 등장시켜 국권을 잃어버린 당시의 상황을 환기시킨다.

책이 발간된 시기는 망국의 통한과 무단정치가 자행되던,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던 때였다. 나는 쇠잔해하고 그 가운데 개인의 삶조차 온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현실 앞에서 자학, 폭음, 속임수 등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고, 어디에도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던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빠지기 일쑤였다.

길선주 목사는 이러한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으로써 기독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개인의 삶조차 온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현실 앞에서 자학, 폭음, 속임수 등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고, 어디에도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던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빠지기 일쑤였다.

『만사성취』가 영적 순례를 담은 작품이며 우리 동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해 민족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밝혀주는 책자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길선주의 〈만사성취〉 중 ‘소원성’, 1916.

이 책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만은 아니었다. 이 점은 제2장 ‘소원성’ 삽화에서

CROCKETT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 · 꽃가루 · 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Honey 3lbs \$25+tax

Crockett Honey (Original)

Bee Pollen \$45+tax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Royal Jelly \$25+tax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Honey 3lbs \$25+tax

Crockett Honey (Original)

Bee Pollen \$45+tax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Royal Jelly \$25+tax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출길 손빈아 김용빈 천록담 추혁진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라스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갠슬시 패널티 적용

et ELITE TOUR 여행의 명문 -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